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 바탄반도주립대 TIMES-SLC 어학원 강의실과 기숙사가 한 건물에 있으며 카페테리아(식당)과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업	수업은 아침8시부터 오후4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50분+쉬는시간10분으로 진행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입니다. 오전 그룹수업2시간, 1대1수업 2시간으로 진행되고 오후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과목은 그룹수업으로 토익스피킹수업2번, MMC수업, FACE TO FACE수업이 있고 1대1수업으로는 VOCA수업2번, READING수업2번이 있습니다. 첫 날 레벨테스트로 성적 등수를 매겨서 5명씩 그룹을 만들어 그룹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레벨테스트를 제대로 응시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대1 선생님들같은 경우 본인과 잘 맞지 않거나 발음 때문에 알아듣기 힘든 경우에 선생님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voca선생님 한 분이 오티 첫날부터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참고 계속 수업을 이어가면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계속 고민하다가 파견기간 중간정도 기간에 교체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기간이 애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교체해주셔서 남은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활동적인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수업 몇 번이나 했는데 바꿔 달라하기 미안하다 다음에 얼굴을 어떻게 보냐 이런 생각으로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학생매니저나 버디선생님께 이유와 함께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우러 가는 것이니, 나에게 맞는 선생님에게 배울 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행위는 안하면 좋겠어요! 당연히 선생님이 나에게 잘 맞을수도있지만 잘 맞지않고 선생님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중에는 발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발음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특유의 필리핀발음으로 잘 알아듣기 힘든 선생님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서는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알

	아듣기 힘들면 선생님교체요청을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리딩교재의 난이도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요. 레벨 테스트 결과대로 책의 난이도가 달라져서 같은 리딩책 같은 보카책이라도 학생들마다 다른 책, 다른 내용을 배웁니다. 저는 보카책은 제 수준보다 쉬웠던 반면에 리딩책은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중간에서 막바지기간에는 리딩선생님에게 책이 나에게 너무 어렵다, 책을 바꾸고싶다고 말하니까 그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어쩔수 없이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책을 받고 나에게 맞는 난이도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책에 있는 모르는 단어를 수업시간 전에 형광펜으로 긋고 뜻을 써갔음에도 불구하고, 단어자체도 너무 어려워서 리딩 글내용을 이해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Activity	액티비티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로 진행되었는데 이 일시는 매번 다른 것 같습니다. 주로 카페테리아에 모여서 게임을 진행하거나, 레벨테스트를 본 곳에서 다함께 영화를 봅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진행되는 게임은 주로 활동적인 게임이 많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고 뛰고 이런 활동들이니 이 시간만큼은 편한 복장으로 가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액티비티 시간엔 많은 선생님들도 함께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즐기는 분위기로 함께 즐기면 매우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에는 클락투어와 요트투어, 리조트 투어도 했었는데 클락투어는 그냥 클락 sm물을 돌아보고 온 거라 쇼핑할거 하고 먹을거 먹으니 시간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구요. 요트투어가 재미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흐려서 좀 아쉬웠지만 요트위에서 바람맞으면서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만으로 너무 재밌었네요! 아 그리고 저는 이때 수영은 하지 않았지만, 요트투어때 수영하고 싶은 분들은 꼭 수영복이랑 수건 챙겨가세요! 리조트 투어는 하,,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며칠전에 호텔수영장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리조트에서는 수영안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수영복을 아예 안가져갔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주어져서 사진 좀 찍고 나니까 할게 없더라구요,,...너무 슬펐어요,, 꼭 수영복가져가세요~ 수영복 가져온 친구들은 리조트 수영장에서 수영도 재밌게 하고 또 스노쿨링이나 바나나보트같은 액티비티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 하더라구요! 필리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저희는 겨울시즌에 간거라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비가 연속해서 오는 날도 있었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있었습니다. 접이식 우산은 꼭 하나씩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수빅지역이라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운타운 시내에 나갈때에 선생님들이 가방조심 폰조심하고 다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가방이 열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폰을 손에 쥐고다니면 나쁜사람이 와서 채갈수도 있다고 했으니 되도록 가방안에 넣어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후기를 보았을 때 숙소 에어컨이 시끄럽다는 걸 보고 얼마나 시끄럽길래 그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 그래도 잘 때는 에어컨을 틀고자면 너무 추워서 끄고 자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이나 어디 나갈때마다 중간중간 계속 방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코드도 다 뽑고 에어컨도 끄십니다. 저와 제 룸메들은 에어컨을 많이 안틀고 생활했었습니다. 에어컨이 위쪽에있고 리모콘도 없어서 클고끄기가 귀찮은 것도 컷습니다.. 와이파이하는 잘 터집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 데이터를 켜도 안되고,, 그냥 잘 안됩니다. 벌레는 방마다 바퀴벌레가 몇 번씩 나오는 방도있고 리자드,,도마뱀이 창문에 계속 나타나는 방도있습니다. 제가 지냈던 방에서는 바퀴벌레 두 번나오고 도마뱀 한두번나오고 나머지는 밤에 불빛보고 나타났던 자잘한 벌레들 나방들같은 것이었습니다. 방안에서 과자 먹을 때 부스러기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고(어떤 방은 과자봉지쓰레기를 바닥에 두었다가 개미가 엄청 꼬였었습니다) 특히 밤에 방에 들어가고 나갈 때 후다닥 문을 재빨리 닫아야 좀 더 안전합니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v) 기타() 카페테리아 식당은 맛있을때있고 그냥그럴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한식으로 나오기는 하나 우리가 느낄 때 완전한 한식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저녁에는 나가서 외부식당을 이용했습니다. 한국에서 편의점떡볶이나 컵라면같은 것들을 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볶음고추장도 가져갈걸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길다보니 한국음식들이 많이 그립고 떡볶이는 한인마트인 썬마트에서 사먹었었는데 맛이,, 정말 별로여서 꼭 사가는걸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나무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일회용 스푼도 여유있게 챙겨가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구비되어있는 곳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한국에선 편의점에서 몇 개씩 칭겨오면 되니까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부식당 추천 : 하버포인트 1층 페퍼런치, 수빅베이 쪽에 한식삼겹살집인 돈경암과 에스프레소 스타멜리(피자,파스타), 베스트웨스턴호텔1층의 바 추천합니다.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칵테일을 즐겨먹었는데 150페소 180페소 정도로 너무 저렴하고 친절하고 맛있습니다.
교통	교통은 FB와 택시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필리핀은 택시에 미터기가 없고

	사전에 택시기사와 가격을 정하고 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가격책정에 주의해서 타시길 바랍니다. 되도록 FB이용을 권장합니다. FB는 14~15페소이고 택시는 목적지와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150~300페소정도입니다. 한국돈으로 하면 얼마안되는 택시비지만 FB가격과는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되도록 FB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FB가 계속 안오거나 올핸즈비치같은 특정한 목적지를 갈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60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 사비	400달러	
합계	약 1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생각보다 필리핀이 물가가 싸지 않고, 오히려 비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따라서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니 넉넉하게 350~400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0달러만 가져간 친구들은 후반부에 돈이 부족해서 주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는데 수수료가 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넉넉히 달러를 준비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한국음식들을 조금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한국라면을 구입할 수는 있으나 맛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도 종류별로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주가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아픈친구들이 생겼는데 물갈이를 대비한 지사제와 감기약, 소화제 정도는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는 수영복을 꼭 챙겨가야하고 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필품같은 경우도 필리핀이 엄청싸다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그만 사이즈로 익숙한 제품을 들고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주변 친구들이 추천도 많이 해주었고 나 자신도 영어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필리핀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주가 너무 짧았다는 친구들도 있고 생각보다 길었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집이 그리웠고 4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학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과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경험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수영장에서 놀고 함께 클럽도 가보고 각테일도 마시고 쇼핑도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어보았습니다. 파견전부터 알았던 친구들과만 다니기보다는 새로운 친구들도 함께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는 40명으로 그전보다는 인원이 두배로 늘었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친해지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들수있었습니다.

영어면에서는 영어에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잘하고 있고 너 영어잘하는 편이다 칭찬을 많이해주셔서 좋았고 계속해서 영어로 말하고 소통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검색해보고 활용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 놀고오자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키우고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고오자라는 마인드로 수업준비도 조금씩해보고 수업중에 잘 이해안되는 단어는 수업이 끝난 뒤에 간단하게 찾아보면서 복습도 해보면 더 영어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벨테스트와 최종테스트를 통해서 등수가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잔인하다고 느껴졌었는데요. 마지막 졸업식 때에는 등수별로 학생들을 줄지어서 입장하는 것도 앉는 것도 등수대로 앉아서 너무 놀랐고 너무하다는 의견이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최종테스트결과 상위권학생들은 졸업식에서 연설도 하는데 너무 그 학생들을 베스트 스튜던트라고 하고 그러는것도 조금 오버하는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다른학생들에게는 나름 좀 상처였습니다. 등수별로 줄세우고 이런 것들은 없애면 좋겠고, 학생들은 레벨테스트나 최종테스트때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기간동안 새로운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키우고 오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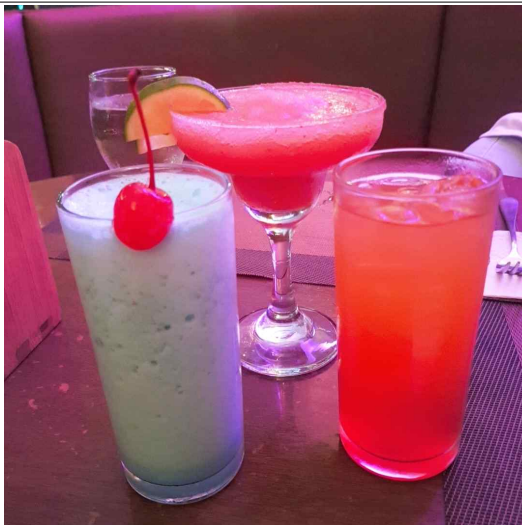
	
올헨즈비치에서 바나나보트	1월1일 카페테리아에서 다같이 카운트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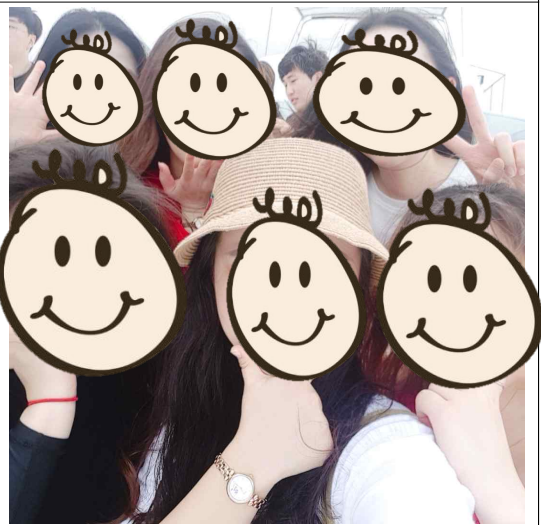
테라스 호텔 수영장



울헨즈 비치에서 도착하자마자 인증샷



베스트웨스턴 호텔 칵테일



요트투어